

이조 말엽의 이야기이다.

나라가 허약해지자 힘이 강하다는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백성을 다스린다는 위정자들도 여러파로 갈라져서 아웅다웅 싸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넘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것이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속셈도 모르고 백성들의 아우성도 모르는 채 위정자들은 다른 나라의 힘을 끌어 들어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야겠다고 정사에 마구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가까운 섬나라 일본이 힘이 강했던지 약살빨랐든지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약해서 말을 못했고 아는 자인 위정자들은 싸움에서 이긴 친일파들과 함께 일본과 합방되기를 서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라에서 벼슬로는 참의까지 지낸 이남규라는 선비가 임금께 나라를 구해야 겠다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 아무리 이 나라가 허약하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섬나라 오랑캐들이 주상전하께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지위 높은 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기피하고 지위가 낮은 자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강한 자는 참고 약한 자는 겁내고 있으니 이 어이된 일입니까? 뒷골목의 어린 아이들도 불경한 자에겐 반드시 팔을 걷고 덤비는 것이 천성이거늘 주상전하를 모신 문무백관이 뒷골목의 어린이들만 못하다니....."

임금님을 모신 대감들이 조국에 대한 관심을 꼬집고, 섬나라 오랑캐에겐 우리나라 백성들이 따끔하게 버릇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상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국적인 이남규의 상소문도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족의 저력은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힘이 몇사람의 나쁜 행동에 아랑곳 없이 주저 앉아 버렸다면 그 나라의 운명을 뻔한게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남규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나라를 살리고자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없다는 야비한 벼슬아치들은 슬슬 꿈무늬를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이 돈사람, 눈치만 보며 살려는 사람, 이런 쓰레기통에 담아야 할 사람들이 우굴대는 궁중을 벗어나서 그는 초야를 헤매었습니다. 초야엔 많은 우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기 1907년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꼭 성공시켜 나라의 정세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그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역부족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의병은 오랑캐의 군대와 그들의 앞잡이 군병들에게 무참하게 죽어 갔고 빼앗긴 조국을 찾겠다는 최익현 같은 분도 오랑캐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의병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을 때 그가 은거하고 있는 집으로 오랑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건방지게도 어째서 의병봉기에 가담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이남규는 어째서 남의 나라일에 간섭하느냐고 맞섰습니다. 오랑캐들은 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선 공주 감옥에 데려간다고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남규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느니 차라리 그들과 싸우다 죽는 게 옳다고.

그는 역촌 평창 천변에서 오랑캐들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이 나라 백성을 무슨 권리로 잡아 가느냐고 덤벼들었습니다. 오랑캐들은 그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못보겠다고 아들이 덤벼들며 아버지 대신 나를 죽이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잔인 무도한 왜놈들은 아들을 먼저 쏘아 죽였습니다. 이남규는 소리쳤습니다. 섬나라 오랑캐는 제 땅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왜놈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결국 오랑캐들은 이남규에서 총탄을 퍼부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같이 잡혀가는 종도 가만있지 않았습니까. 덤벼들며 싸웠습니다.

"너, 이놈 ! 어째서 우리 대감을 죽이느냐?" 오랑캐들은 종마저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나 잘살아 보겠다는 벼슬아치들보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었습니까?

지금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가면 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이남규 열사는 우리의 귀감이 될 우국지사입니다. 그리고 아산군 송악면 역촌평창 천변에는 이남규 열사 부자와 그 종이 함께 흘린 피와 열이 이 땅을 지키며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우리의 갈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